

# ‘다시 울리는 노래’ 그때의 우리, 오늘의 시간과 만나다

광주시립미술관 ‘공명-기억과 연결된 현재’ 리뷰

1980년 그리고 2024년, 시대를 투영한 ‘노래’의 기억 수집·분석 미디어아트·사운드로 구현한 작품부터 미발표 노래극 등 ‘다채

입구에 들어선 순간 노랫소리가 흘러나온다. 익숙한 듯 낯선 민중가요의 음성이 전시장을 가득 채운다. 스피커마다 다양한 선율이 흐르고, 관객은 그 사이를 걷는다.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오는 8월17일까지 열리는 2025 민주인권평화전 ‘공명-기억과 연결된 현재’는 말 그대로 ‘기억’과 ‘현재’가 서로를 울리며 반응하는 공간이다.

이번 전시는 단순한 과거 회고에 머무르지 않는다. 1980년, 2024년의 계엄이라는 두 시점을 나란히 배치해 모순과 희망이 동시에 존재하는 오늘의 현실을 예술로 들여다 본다.

전시 제목은 2021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수상 소감에서 비롯됐다. ‘세계는 왜 이토록 폭력적인가, 동시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전시 전반을 관통한다. 이 질문은 다양한 작업과 아카이브의 층위를 따라 확산된다.

전시 초입에 자리한 아카이브 섹션은 이번 전시의 중심 축이 되는 공간이다. 1980년대와 2024년 시위 현장을 중심으로, 시대를

투영한 ‘노래’의 기억을 수집·분석하고 재배치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오월의 노래’, ‘광주 출전기’ 등 80년대를 대표하는 민중가요는 물론 대중가요 기반의 개사곡들이 관객의 움직임에 따라 각기 다른 스피커에서 울려 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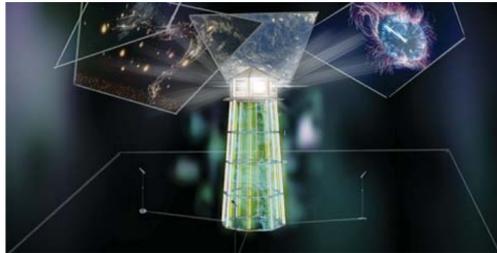
쉽게 접할 수 없는 희귀 자료도 만나볼 수 있다. 새벽 창작집단의 미발표 노래극을 비롯해 1984년 발매 직후 수거돼 시중에 퍼지지 못했던 ‘노래를 찾는 사람들’ 초판 테이프가 이번 전시를 통해 처음 공개된다.

참여형 미디어 설치작품도 눈길을 끈다. 관객의 목소리를 감지해 빛으로 확산시키는 임용현의 ‘발화의 등대’, 관객 움직임에 따라 영상과 음향이 변화하는 신도원의 ‘너-기억의 투영’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작품들이다. 성기완의 ‘H LKG518 여기는 라디오 광주’는 1980년대와 2024년의 시공간을 연결하는 가상의 라디오 방송을 통해 역사와 현재의 간극을 사운드로 채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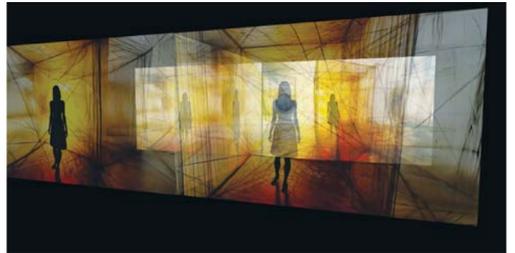
전 세계 저항 현장에서 불린 노래들과 바



권해원작 ‘바리케이드에서 만나요’



임용현작 ‘발화의 등대’



신도원작 ‘너-기억의 투영’

리케이드 설치 퍼포먼스를 연결시킨 권해원의 ‘바리케이드에서 만나요’, AI가 학습한 1980년대와 2024년 뉴스 텍스트·이미지를 재조합한 양민하의 ‘그대와 그대의 대화’ 등도 있다.

이번 전시는 기억의 보존 장소에서 더 나

아가 참여와 공감의 플랫폼으로 전시장을 전환시킨다. 관객은 더 이상 과거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위치에 머물지 않는다. 음악과 미술, 인터랙션의 매개를 통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기억에 응답하게 된다.

정희석 학예연구사는 “폭력과 아름다움

이 공존하는 세계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예술을 통해 질문을 던지고 싶었다”며 “기억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공명’이라는 개념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다”고 밝혔다.

/최명진기자

## 파도 위 감각의 문장...신화처럼 풀어낸 바다 풍경

김25 작가 개인전, 22일까지 부산 스페이스 원지

파도를 닮은 붓질과 손가락으로 쓴 언어의 파편들이 바다 위를 흐른다. 추상과 구상을 넘나들며 텍스트에서 색채로, 감각에서 기호로 확장해온 김25작가의 작업이 부산에서 처음으로 개인전 형태로 펼쳐진다.

전시 ‘WAVE Castaspell(파도를 넘다)’은 작가가 바다를 하나의 감각적 언어로 풀어낸 작업들을 소개하는 자리다. 문자와 파도, 색과 흔적이 교차하는 화면을 통해 관람자는 익숙한 언어 대신 흐름과 움직임 속 감정을 읽게 된다. 작가는 글씨와 색채, 손짓의 조합을 통해 ‘읽히는 바다’가 아닌 ‘느껴지는 바다’를 만들어낸다.

이번 전시는 바다의 날(5월30일)을 맞아 오

는 22일까지 부산 영도에 위치한 스페이스 원지에서 열린다.

전시 작품은 신작은 10점과 2022년 이후 제작된 근작들로 구성돼 있어 작가의 최근 회화적 전환과 실험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이번 신작에서 작가는 글씨보다 색과 붓질의 에너지에 집중했다. 자신의 손가락과 손바닥을 사용하는 드로잉 방식으로 더욱 격렬하고 즉흥적인 화면을 구현했다.

그의 대표작 ‘노아의 방주’ 시리즈는 성경 창세기 구절을 차용해 바다를 생명과 구원의 상징으로 풀어낸 작업이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무지개의 약속’을 주제로 색과 흔적의 상징성을 더욱 확장해 보인



‘Noah's Ark’

다. ‘꼭 글씨여야 할 이유는 없다’는 작가의 말처럼 조형적 감각에 집중한 화면이 눈길을 끈다. 손글씨는 더 이상 읽히는 문장이 아니라, 파동처럼 흐르는 시각적 리듬으로 작용한다.

/최명진기자

## 우디가 전하는 ‘너에게 닿는 노래’

광주예술의전당 기획공연 포커스 세 번째 무대...오는 20일 오후 7시30분

감성적인 메시지로 대중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온 우디(사진)가 광주에서 콘서트를 연다. 광주예술의전당 기획공연 포커스 세 번째 무대, 우디 ‘너에게 닿는 노래’가 오는 20일 오후 7시30분 전당 소극장에서 열린다.

우디는 2011년 그룹 N-Train으로 데뷔한 이후 보컬과 랩은 물론 작곡, 프로듀싱 등 다방면의 역량을 겸비한 뮤지션으로 활동해 왔다. 진정성 있는 메시지와 따뜻한 음색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다.

공연에는 보컬 우디를 중심으로 기타 강우림, 베이스 이용규, 메인 건반 원혜영, 세션 건반 강진성, 드럼 김성영 등 전문 연주자들이 함께한다.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 및 티켓링크를 통해 예매 가능하다.

이날 공연에서는 ‘이 노래가 클럽에서 나온다면’, ‘사막에서 꽃을 피우듯’, ‘say I love you’, ‘어제 보다 슬픈 오늘’, ‘대충 입고 나와’ 등 감성적인 곡을 통해 관객과 깊은 교감을 나눌 예정이다.

관람료는 R석 3만원, S석 2만원이며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 및 티켓링크를 통해 예매 가능하다. /최명진기자

엄마 마음으로 돌보아 드립니다~

###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입니다.

- 대상: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
- 정부지원: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양육공백기준: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서비스 유형	가형(75%이하), 나형(120%이하) 다형(150%이하), 라형(200%이하) 마형(200%초과)
시간제서비스	연 960시간 / 1회 2시간 이상 신청
영아종일제서비스	월80시간 ~ 200시간 / 1회 3시간 이상 신청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1회 2시간 이상 신청

우리 아이 양육 파트너 ‘아이돌보미 모집’

신청방법 | 아이돌보미 홈페이지(<https://care.idolbom.go.kr>)회원가입 → 모집공고확인 → 지원신청

광주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 대표번호: 1577-2514 (전국 서비스 제공기간으로 자동 연결) 홈페이지: [idolbom.go.kr](http://idolbom.go.kr)

Tape to USB/DVD 영상변환서비스

SONY

## USB DVD

### 영/상/변/환/서/비/스

고객님이 소장하고 계신 TAPE를 가져오시면 USB/DVD로 만들어 드립니다.

- 화질 손실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보관 장소가 줄어듭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캠코더·카메라 중고 제품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DVD 변환전문업체 | 스마트폰, 태블릿, TV, PC 모두를 위한 Type A, C 듀얼 USB

소니서비스센터 062)522-2000 |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입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